

# ‘천년 사랑’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글 현경숙·사진 백승렬 기자

## 정읍사(井邑詞)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돌으시어  
 어기야차 멀리멀리 비치게 하시라  
 어기야차 어강도리  
 야오 다롱디리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차 진 곳을 디딜세라  
 어기야차 어강도리  
 어느 것이나 다 놓으시라  
 어기야차 나의 가는 곳에 저물세라  
 어기야차 어강도리 야오 다롱디리  
 (현대어 풀이)



**불꽃 같은 사랑과  
혁명의 고을, 정읍**

정읍은 한국에서 단풍이 가장 풍성한 내장산을 품은 고장이다. 내장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깃들고, 단풍보다 더 붉은 혁명의 깃발이 휘날리던 곳이기도 하다. 정읍은 천년 사랑을 노래한 백제가요 '정읍사'가 태어난 곳이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사랑과 혁명의 공통 분모는 열정이라.





**유일하게 전하는 백제가요  
정읍사**

백제가요는 다섯 곡이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무등산가, 방동산곡, 선운산가, 지리산가, 정읍사이다. 이 중 가사가 전하는 곡은 정읍사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곡명과 유래만 알려졌을 뿐이다. 정읍사는 한글로 가사가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이기도 하다. '달하 높이곰 도드샤'로 시작하는 시적인 구절은 정읍사를 한번 들으면 잊지 못하게 만든다. 정읍사는 항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백제 여인의 애타픈 사랑 이야기다. 이 사랑을 되새기며 걸을 수 있는 호젓한 소나무 숲길이 있다.

정읍천변에서 멀지 않은 정읍사 공원에서 시작해 월봉 등산로를 따라가다 월영마을에 이르는 6.4km의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1코스이다. 이 오솔길은 내장호수 길인 2코스와 정읍천변 자전거 길인 3코스가 더해져 모두 3개 코스로 구성된다. 1, 2, 3코스를 모두 합하면 약 17km이다. 1, 2코스를 이어 걸어도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1, 2코스를 걸은 뒤 3코스에서 자전거를 타면 출발점인 정읍사 공원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정읍사 공원에는 '샘고을'이라는 정읍의 명성

에 걸맞은 큰 약수터가 있었다. 수량이 많아 물을 받아 가는 시민이 줄을 잇고 있었다. 대부분의 도심 약수터가 오염된 것과 비교하면 정읍의 물이 얼마나 맑고 풍부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동진강 발원지인 정읍천을 따라 공원으로 가는 도로변에는 벚꽃이 만개했다. 천변 고수부지에는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정읍 9경' 중 하나인 공원에는 정읍사의 주인공인 백제 여인이 망부석이 돼 서 있었다. 두 눈은 아득히 먼 어느 지점을 응시한 채. 그곳은 장에 간 남편이 되짚어오기로 돼 있던 고갯마

루인 듯 했다. 공원에 흐드러지게 핀 목련과 벚꽃은 여인의 슬픔을 위로하는 듯했다. 공원에서 출발해 안경광학과, 간호학과 등 보건 계열 학과의 지명도가 높은 전북과학대학교를 지나면 오솔길 1코스 들머리가 나온다. 오솔길은 가파르지 않은 산길이었다. 열마를 걸었을까. 맞은편에서 산악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는 라이더와 마주쳤다. 1코스는 걷기 좋은 산길이지만 험하지 않아 산악자전거 길로도 손색이 없었다.



2



1



3

1 정읍 벚꽃길  
2 정읍사 망부석  
3 정읍사 오솔길에서 산악자전거타는 라이더





### 소나무 그늘에 곱게 핀 진달래

오솔길은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나 있었다. 뽀뽀한 소나무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 그늘에서 곱게 피어난 진달래 무더기였다. 웅달에서 자란 닳은 꽃잎은 여렸고 색은 연분홍이었다. 오솔길 중간에 남사면 전망대와 북사면 전망대가 있었다. 남사면 전망대에 서니 멀리 노령산맥에 속하는 삼성산, 입암산, 방장산 등이 보였다. 산봉우리 사이

에 새재, 갈재가 있었다. 옛적에 전북과 전남을 잇던 주요 고개들이다. 노령산맥의 이름은 갈재에서 유래했다. '노령'은 갈대가 많은 고개란 뜻이다. 갈대는 주로 물가에서 자라고 산 위에는 역새가 많다. 생김새가 비슷한 역새와 갈대를 혼동한 데서 '노령'이란 이름이 생겼을지 모르겠다. 노령의 해발고도는 206m이다. 입암산 정상부에는 입암산성이

있었다. 동학농민혁명 때 전봉준은 관군을 피해 입암산성 쪽으로 피신했었다. 입암산의 거대한 바위 봉우리가 멀리서도 뚜렷했다. 북사면 전망대에서는 호남정맥에 속하는 고당산, 망대봉, 칠보산이 조망된다. 칠보산은 정읍의 진산이다. 높이에 비해 골이 깊어 임진왜란, 동학농민혁명 때 민중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 칠보산 아래 금봉동 금북 마

을의 옥녀봉은 풍수지리학 옥녀탄금형에 해당한다고 한다. 옥녀봉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면 맑은 편 종산에서 '둥둥' 쇠북이 울러오는 전설이 내려온다. 산 아래쪽에 정읍우도농약전수관이 들어서 있다. 풍수설의 내용처럼 약기와 인연이 깊은 곳인가 보다.

1, 2, 3 정읍사 오솔길의 진달래꽃과 소나무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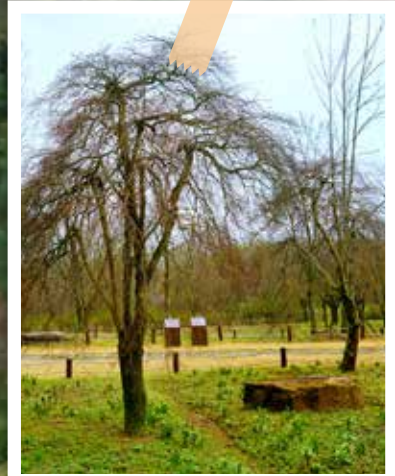


1 정음사 오솔길 2 월영습지 3 두꺼비바위  
4 작은월영 아래 습지

오솔길은 7개 구간으로 나뉘어 만남의 길, 환희의 길, 고녀의 길, 언약의 길, 실천의 길, 탄탄대로의 길, 지킴의 길로 이름 붙여져 있었다. 부부가 함께 가는 인생 역정을 표현한 명칭들이다. 1구간 만남의 길 끝말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길'. 이 신선하고 풋풋한 숲의 향기, 당신과 함께 시작하기에 얼마나 기쁘고 설레는지요라는 글귀가 인연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두꺼비 바위를 지나 월영 습지보호 지역에 이르면 저층형 산지습지를 만날 수 있다.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가진 이 습지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월영 습지는 옛날 다랑은 형태의 농경지였으나 방치되면서 인위적 간섭이 배제되고 자연 천이가 일어났다. 환경부는 이곳을 2014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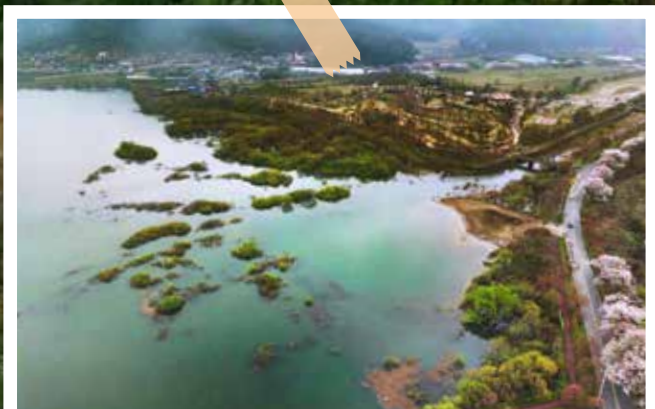
공작단풍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습지에서 비탈길을 내려가면 오솔길의 종착지인 월영마을에 도착한다. 종착지 근처에는 목공예체험장, 임산물체험단지, 향기 식물원, 내장산문화광장, 국민여가캠핑장 등 문화, 여가 시설이 많았다. 캠핑장은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핫플'이었다. 1코스 종착지에서 10분쯤 걸어가면 둘레에 2코스 내장호수길이 조성된 내장호에 이른다. 내장호를 중심으로 전봉준 공원, 갑오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탑, 내장산조각공원,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등이 펼쳐졌다. 전날 내린 비로 내장호의 물은 한껏 불어나 있었다. 둘레길 높이 가까이 차오른 물은 넘칠 듯 찰랑거렸고, 버드나무는 허리까지 물에 잠겨 있었다. 안개가 떠다니는 수변을 시민들이 걷고, 뛰는 모습은 평화가 충만한 풍경이었다.



내장호와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